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3일 새해 첫 자비나눔 방문으로 내성천을 찾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고무장화를 신고 내성천 곳곳을 살피며 내성천 변화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종단, 새해 첫 자비나눔 현장 '내성천'

총무원장 자승스님 지율스님 격려... '땅 한 평사기 운동'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새해 첫 자비나눔 방문으로 내성천을 찾아 지율스님을 격려하고 내성천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땅 한 평사기 운동'에 종단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내성천을 찾아 지율스님에게 격려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영주댐 공사로 인해 훼손된 내성천 상류와 중류 지역을 둘러보았다. 이날 방문은 내성천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율스님을 격려하고,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자연과 환경에 대해 성찰의 기회를 갖기 위해 이뤄졌다. 지율스님은 "이곳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반대운동이 아니라 30곳 정도를 지정해 내성천이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활동"이라며 "현재 내성천의 변화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스님은 내성천 보호를 위한 땅 한 평 사기운동을 호소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본사 주지 스님들과 함께 협조해 1000평 정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단과 집행부, 교구본사 차원의 동참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지율스님과 함께 텐트 주변 강변과 미림마을, 먹실마을 우레고 인근 강변 등 3곳 직접 걸으며 내성천의 변화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3면 영주=연태무 기자 che11@bulgyo.com

설날 템플스테이 하며 합동차례 지낸다

가족과 함께 하는 설 프로그램 즐비

오는 31일 설을 앞두고 사찰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고 템플스테이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합동차례와 전통놀이, 명상, 사찰 문화체험, 트레킹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가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하는 템플스테이에서는 불교식 설 문화인 통알 세배와 떡국 공양, 108배, 명상, 큰스님과 차담 시간이 마련돼 있다. 덕숭총림 수덕사도 30일부터 2월1일까지 설 템플스테이를 열고 전통적인 다례의식과 함께 사찰식 떡국 공양, 소원 풍등 날리기 등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한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자연과 함께 휴식하는 '작심 4일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30일부터 2월2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지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합동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함께 먹고 웃음이를 하며 사찰의 명절 풍속을 체험할 수 있다. 부안 내소사는 연휴가 시작되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청마(靑馬)야! 설날에 놀자'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타종제함과 사찰식 떡국 공양, 불화 그리기, 108배, 영화 '오세암' 감상 등을 한다. 경주 골굴사는 30일부터 2월2일까지 3박4일간 설날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사찰식 만두 빚기와 합동차례, 민속놀이, 발우공양을 함께 하며 선무도 수련과 국궁체험, 선무도 공연관람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한 통역사도 준비돼 있다. ▶관련기사 3면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세계 최고 행복국가' 부탄 가보셨나요 13면

“시대에 맞는 승가상 구현위해 승가교육 심화 발전시켜갈 것”

교무원장 현응스님 신년회견
교구별 행사 순회상담
해의 행자교육 시행 등
'출가중책 다변화' 시도



조계종 교무원이 올 한해 출가중책 다변화를 시도하는 한편, 행자입문교육기간 동안 진행해온 상담을 확대해, 교구별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교무원장 현응스님(사진)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본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11월4일 6대 조계종 교무원장을 맡아 임기를 마무리하는 현응스님은 이 자리에서 "임기는 끝나지만 교무원 업무는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교육 내용과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무원이 내세운 중점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가자 확대를 위한 중책이다. 지난해 '정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청소년 출가자나 단기출가자의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되는 등 종단의 출가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와 함께 교무원은 해외특별교구나 종단에 등록된 국외사찰서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들의 출가를 지원한다. 발심 출가한 행자들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행자 상담도 강화한다. 교무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행자 320여명 가운데 30%를 웃도는 120명 가량이 중도 포기했다. 퇴사 원인은 이른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하는 행자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사찰 구성원과의 갈등 때문으로 꼽혔다. 교무원들은 지난해 출가상담사 4명을 위촉해 입문교육기간에 행자들에게 대한 상담을 진행해온 것을 확대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행자를 대상으로 교구별 순회상담을 추진한다. 교무원장 자승스님은 "실제 입문교육에 상담이 도입된 후 행자들의 퇴사율이 낮아졌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 퇴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시작돼 20대 청년들에게 출가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가 돼준 청년출가학교는 올해부터 신청하는 사찰 및 단체에 위탁해 운영한다. 기본 프로그램은 교육원에서 마련하되 운영을 사찰이나 단체에 일임할 계획이다. 교육개혁을 통해 지난 4년간 승가교육의 일대 혁신을 주도해온 교무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4년간 지속된 교육원 사업의 방향은 한국불교 가치와 정신, 이념을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스님과 승단의 모습과 역할을 내용에 집약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심화돼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불교가 현대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불교의 가치관이 본래 의미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교육아사리 7명 선정

조계종 교육아사리로 유식, 선불교, 불전언어, 초기불교 등을 전공한 7명의 스님이 새롭게 선발됐다. 조계종 교무원들은 지난 23일 교육원 회의실을 열어 2014년 교육아사리로 여연, 현진, 부호스님(이상 비구)과 선일, 현견, 형운, 자목스님(이상 비구니) 등을 선정했다. 여연스님은 유식학 관련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진스님은 중앙승가대 역경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등에서 10여 년간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를 수학했다. 부호스님은 동국대에서 한국불교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선일스님은 인도 부내대학교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각각 철학 및 빠알리 삼장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무원이 제자 보급한 이라님 프로그램 중 빠알리어 동영상 강의 강사다. 현견스님은 중국 북경대학에서 선불교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형운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에서 선어(禪語)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현재 동국대 강사다. 자목스님은 스리랑카 켈라니야 대학에서 초기불교를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국대 강사다.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승가교육 발전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게 되며, 종단으로부터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7명의 교육아사리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종단 교육아사리는 현재 34명이다. 위촉식은 2월11일이다. ▶관련기사 3면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삼선불학승가대학원 개설

대한불교조계종 교무원 인가 삼선불학승가대학원에서는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한역원전을 수학과 연찬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단의 인재 양성에 동참하고자 불기2558(2014)학년도 신입생(비구니)을 모집합니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연담 묘순

교육과정(2년 4학기)

- 전문과정 1년: (1학기) 금강경, 아함경, 한문학연구 I (2학기) 구사론, 원각경, 한문학연구 II
- 전문과정 2년: (1학기) 해심밀경·유식30송, 중론 (2학기) 한국 선문헌, 중국 선문헌

2014년도 1학기 학사일정 3월 26일 ~ 7월 16일

교수사

- 금강경: 묘순스님(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 아함경: 원과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 한문학연구 I: 현성주선생님(동국대역경원 한불전 편집실장 및 상임종의위원)

수업시간: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6시

교육장소: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모집인원: 개방형 신입생(통학) 00명(비구니)

지원자격: 기본교육기관 졸업생 및 구족계 수계예정 비구니 이와 동등한 자격 인정되는 비구니(종단 비구니 포함)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진(3x4) 2매

모집일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3월 10일(월),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지표: 추후 개별 통보

신청방법: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번지 삼선포교원 (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접수 가능)

특전: ① 졸업 후 3급 승가교사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② 논문 및 번역서 등 심사 후 조교수 자격 부여 ③ 교재 제공 ④ 장학 제도

등록금: 1학기당 70만원, 과목별 수강을 원할 경우 과목 30만원(특전 ①②④제외)

문의처: 02)923-0582(삼선불학승가대학원) 팩스 02)925-1870